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해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다음 주일 교구일꾼 · 서리집사 임명식

- 3부 예배 후 교구 총회 -

우리 교회는 2001년도 서리집사 729명, 12개 교구 207명의 다락방 장을 다음 주일(12월 3일) I, II, III부 예배시 임명케 된다. 임명을 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며 서약한 대로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에게서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한다. 한편 다음 주일 3부 예배후 본당에서 12개 교구 총회가 있다.

각부 총회

우리교회 남신교회와 여전도회는 11월중 각 회별로 총회를 열어 새 임원을 선출한다. 12월중에는 교사 총회 및 찬양대 총회가 부별로 열리게 된다. 스테반회 총회는 12월 9일(토), 권사회 총회는 12월 6일(수)에 각각 갖게 된다.

핸드벨(Hand Bell) 입학되다

미국 슈메르크 회사가 제작한 핸드벨(Hand Bell) 61조(5옥타브)가 지난 23일 주문한지 6개월만에 도착했다.

어제 오후 3시 핸드벨 팀에 입단할 대원들의 오디션이 있었다. 입단을 원하는 이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새 예배당

입당 D-29

일사천리라는 말이 있다. 유행어도 아닌 그 말이 새 예배당 건축현장에 퍼졌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하다는 뜻을 설명함이다.



2000 사명자 대회 막을 내리다

지난 25일(토) 새벽 기도회로 50일간 기도와 전도를 위한 2000 사명자 대회가 막을 내리었다. 그동안 24시간 기도 릴레이, 다니엘 기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고 태신자 초청

전도, 70인 전도대 전도 운동을 크게 벌이면서 사명 받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다.

승전 감사 예배는 11월25일(토) 새벽 예배시 드렸다.

교사대학 개강한다

희망찬 새 예배당 시대를 맞아 유능한 교사의 양성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바 교육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여 서울교회 교육목표인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을 양성하고자 교사대학을 개강한다.

입학 자격은 기존 교사 및 세례교인이면 누구든지 입학 할 수 있다. 이번 교사대학을 수료하게 되면 교사자격증이 수여되며 기존 교사라도 자격증을 이수후 정교사로 임직하게 된다. 교사대학은 2000년 12월 4일~12월 2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 403호실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2년 이상의 교사경험이 있는 교사는 7시간 이상(7차시 까지) 참석하면 되고 신입 지원자는 전과 정 15시간 모두를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 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일	요일	차시	1교시 (5:30-6:00)	2교시 (6:00~7:00)	강사
12/4	월	1	새 벽 예 배	2001학년도 주제해설	이종윤 목사
5	화	2		교사의 사명인식	이성득 목사
6	수	3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정윤돈 목사
7	목	4		성경이란 무엇인가?	고경선 목사
8	금	5		교회란 무엇인가?	이규정 목사
9	토	6		교사는 누구인가?	이성득 목사
12/11	월	7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윤석범 목사
12	화	8		매체활용 수업의 이론과 실제	정윤돈 목사
13	수	9		소그룹 활용과 공과 인도법	고경선 목사
14	목	10	교수-학습지도란 무엇인가?	이규정 목사	
15	금	11	교회절기와 예배	이성득 목사	
16	토	12	기도생활과 기도 인도법	지혜영 전도사	
18	월	13	찬송가와 교육의 노래	고경선 목사	
19	화	14	학생상담과 심방은 어떻게 하는가?	정윤돈 목사	
20	수	15	공동체와 반 목회란 무엇인가?	이규정 목사	

교회 설립 9년의 회고와 전망

일시 : 2000년 11월 11일 오후 5시

장소 : 논현동 취영루

참석자 : 이종윤목사, 임광식장로, 박철훈장로,
김광신장로, 오정수장로,
이옥녀권사, 백영희권사, 전인화권사,
서희숙 집사



간담회에 앞서 노송성 장로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있었으며 이종윤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자리를 옮기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9년전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의 눈물 위에 서울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주신 비전을 따라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 왔으며 이제 서울 교회는 온 성도들의 거룩한 정성과 희생과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조그마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새 예배당 시대를 바로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정진해야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비전을 따라 일하며 큰 영광을 기다리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사회 : 먼저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9년 전 서울교회를 설립할 때 시작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그랬고 풍성함이 있었으며 극적인 면이 있었으며 준비와 시작이 매우 빨랐으며 성령 충만과 뜨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우리만 알고 있는 아픔과 통증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면서 서울교회를 낳게 하셨습니다.

9년 전으로 돌아가서 설립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훈 장로 : 뜻밖의 사건이 온 후 영문을 모르는 성도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가야할 길이 어디

인지 알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목자없는 양이 되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서울 교회를 계획하시고 성전을 예비해 주시며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정수 장로 : 이종윤 목사님은 미국으로 출국하시어 계시면서 귀국하시라는 장로님들의 간청을 물리치시며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사람들에게 교회가 싸운다. 목사들이 싸운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침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다른 소명을 위해 한국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옥녀 권사 :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의를 행하지 못하니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는 권사들대로 또 집사는 집사들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두의 믿음이 합해졌고 먼저 저희 집에서 금요철야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게 되어 예배드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훈 장로 : 여러 곳의 예배처소를 알아보는 중에 기독교 학교 강당을 생각해 보았고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수위실에 가서 교장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니깐 어느 교회에서 오셨느냐고 묻기에 엉겁결에 대답하기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왔다고 하고 교장실에 들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전인화 권사 : 저는 그 당시 가정사정상 미국

에 있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권사님들 하고 국제 전화를 했었지요.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당장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지어놓은 새 빌딩이 아직 임대가 안 나갔었는데 그 빌딩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의논하고 당장 허락하였습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백영희 권사 : 아무리 새 건물이라고 해도 예배당 격식은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있는 분들이 합심해서 강대상이며 커튼이며 방석을 하룻밤 안에 만들었고 오정수 장로와 박철훈 장로님도 음향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옥녀 권사 : 우리는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거니 했는데 어떻게든 연락이 닿았는지 첫 번 주일에 168명이 참석했던군요. 그 날이 91년 10월6일 주일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찬양대가 조직되고 서희숙 집사님이 지휘하셨지요. 그리고 그 날로 공동의회를 조직해서 이종윤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 후로는 얼마나들 모여드는지 금방 예배를 3부 예배로 나누어 드려야 했습니다.

백영희 권사 : 목사님께서 머리를 깎고 귀국하실 때에는 정말 눈물났습니다. 지금도 머리를 깎은 모습으로 예배실로 처음 들어오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정수 장로 : 목사님이 오셔서 50일간의 기도기간을 가진 후 서울교회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때의 50일간의 기도기간이 지금까지 사명자 대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서울교회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오정수 장로 : 목사님과 여러 장로들이 교회의 이름에 관하여 의논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지명을 딴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고 하시며 서울교회가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마침 서울에는 서울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서울교회라고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자 : 이제 9년간을 돌아보며 서울교회가 감당했던 중요한 행사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혼 장로 : 성전도 없이 남의 집에 세 살면서 기독교 교도소 설립, 탈북 난민 서명운동, 육사 세례식등 실은 총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저희 교회가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놀라고 있고 그 점에서는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임광식 장로 :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92년에 삼척으로 전 교인이 수련회를 갔던 일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도 참석했었는데 그 때 성도의 교제가 참 뜨거웠습니다. 이 일은 그 후에도 2회 가 더 있었습니다.

전인화 권사 : 생각해 보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김치 세미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인데, 칠십인 전도대, 군복음화 운동, 바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목사님을 따라 쉽없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해서 김밥 짬 날 수가 꼬박 180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사회자 : 새 성전 건축이 성사되기까지의 이

야기와 대치동의 새 성전 건축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수 장로 : 지금의 대치동 부지를 사기전까지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티공원을 등에 업은 대치동 새 예배당 자리를 주셨습니다. 새 예배당을 방문하시는 많은 손님들이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자리가 남아있었냐고 하십니다.

박철혼 장로 : 새 예배당은 온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금과 기도와 헌신이 그대로 배어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즘도 교구별로 밤에 새 예배당을 지키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어려우나 싶으면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건축헌금이 모아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강의하시고 받아오시는 강사료까지 모두 그 곳의 이름으로 건축헌금이 되어지니까요.

전인화 권사 : 우리처럼 성도들이 직접 청소하고 밤샘하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습은 지금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깃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회자 :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배당 시대에 거는 기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희숙 집사 : 새 예배당에 가면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제일 쉬운 봉사를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찬양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찬양대에 오셔야 할 것이고 누구든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녀 권사 : 저는 청소년 교회교육에 좀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영어교육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청소년 영어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화 권사 :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처럼 새 믿음과 새 찬양으로 새 예배당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사회자 :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운 목사 : 저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의 백분의 일도 다 못한 것 같아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르며 힘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긴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편집후기 : 지나간 많은 일들에 대한 말들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서울교회가 설립되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흘리신 분들이 어찌 이 분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교회 10주년 사에서는 여러분들의 더 뜨거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암송하는 성경암송 대회가 열렸다.

유치부에서는 5명이 참가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대화를 성도와 함께 나누려고 한다.

본선을 앞둔 주일, 현준(7세)이 엄마가 마태복음 5장의 1/3 정도를 암송하였다고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순번에 의해 6장을 암송하도록 하였다.

금요일 저녁 현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다. 새로운 장을 외었는데 13절까지 외었다.

엄마는 내게 미소지으며 "유치원보다 교회에 보냈어요"라고 한다. 갑자기 나는 가슴이

유치원보다 교회에 보냈어요

최지혜 전도사(서울교회 유치부)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교사들이 걱정하는 것이 유치원 날짜를 피하여야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치원에 성경학교가 밀린 것이다. 가슴 아픈 현실이었는데 나는 현준이 엄마를 통해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유치원보다 말씀이 승리한 순간이다. 가슴이 쿵쿵거린다. 하나님도 지금 떨린 가슴을 누르고 계시겠지! 현준이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암송했다. 비록 세 장도, 더구나 한 장도 아니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한 절에 담긴 의미들을 '사랑의 고백'으로 듣고

계시겠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부모에게서 현준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는 믿음이 섰다.

먼 훗날 현준이가 절망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핑계치 않으시고 그를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현준이에게 '사랑의 빛'을 갠고 싶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선인 자녀, 세상의 무엇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서·울·교·회·소·사

1991년

- 9월30-10월4일 •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옥녀 권사택에서 39명의 여성도들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기도회 개최
- 10월 6일(주일)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번지에서 168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 교회창립 준비위원회 조직
 - 공동의회를 소집 이종운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키로 만장일치로 가결 (168명 참석)
- 10월 10일 • 이종운 목사 참석하에 교회 창립 준비위원회 소집
- 10월 13일 • 이종운 목사 위임목사 취임/첫 주일예배
- 10월 27일 • 교회학교 개교(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대·청, 새가족부)
 - 찬양대 조직
- 10월 31일-11월2일 • 출애굽 대행진 특별 새벽 기도회
- 11월 3일 • 교역자 청빙(강도사: 임진태, 원필현 전도사:김주아, 유순화)
- 11월 10일 • 남여 전도회 조직 총회 개최(12개 전도회)
- 11월17-24일 • 여리고 대행진 24시간 연속 기도회
- 11월 24일 • 교회 창립예배
 - 교회명- 대한 예수교 장로회**서울교회**
 - 창립회원- 535세대, 1,860명
 - 순례자 창간
- 12월 1일 • 공동의회
 - 장로6명(이우선, 이영세, 박철훈,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 협동장로 1명(유윤진)
 - 안수집사 5명, 권사65명 선출
- 12월 15일 •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
 - 당회 조직

1992년

- 1월 5일 • 제작회 조직
- 2월 1일 • 선교사 파송 (체코- 파블르 체코 목사, 아프리카-우간다-김정운, 박승경 선교사)
- 2월 26일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설립 (국내- 목회자 신학세미나 국외-김치 신학세미나)
- 3월 8일 • 장로1명(임광식 장로), 안수집사 1명 취임
 - 92년도 추가 제직 임명
- 3월 30일 • 제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5월 26일 • 제3차 김치 신학세미나
- 6월 6일 • 92 흥해작전
- 8월 16일 • 공동의회-교단가입전권을 당회에 위임
 - 장로피택- 유윤진, 김태기, 정병무 장로
 - 안수집사 피택- 이남호, 최중시 집사
- 8월 16일 • 유윤진 김태기 정병무 장로 취임
- 9월 7일 •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가입
 - 제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10월 4일 • 비전 2000운동
- 11월 22일 •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 교역자 4명 청빙(권상석, 김재호, 장윤희 목사 최병호 전도사)
 - 집사안수(이남호 최중시)

1993년

- 2월 1일 • 몽골 선교사 파송(황필남 김미원)

- 3월 27일 • 제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4월 8일 • 협동목사 청빙
 - 교육목사-우심화 목사, 김영한 목사 심상권 목사
- 5월 5일 • 제1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 5월 9일 • 공동의회 7명 장로 피택(이남호 김대호 윤봉준 나희주 최중시 홍정호 이영열)
- 5월 25일 • 제4차 김치 신학세미나
- 9월 13일 • 제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10월 3일 • 비전 2000 운동
- 11월 28일 • 교회창립 2주년 및 추수감사절
 - 장로 장립 및 취임
 - 장로 장립- 이남호, 김대호, 나희주, 윤봉준, 최중시, 이영열
 - 장로 취임- 홍정호
- 12월 1일 • 협동 전도사 이만열 박사 취임
- 12월 24일 • 평신도 선교사 신종명 파송

1994년

- 3월 28일 • 제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5월 1일 • 새 예배당 이전 입당 (구) 강남구 논현동 165-18 (신) 서초구 반포동 737-3
- 5월 25일 • 제5차 김치 신학세미나
- 6월 6일 • 94 흥해작전
- 9월 5일 • 제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10월 1일 • 스브로토바로이 선교사 방글라데시 파송
- 10월 2일 • 94 비전 2000운동
- 11월 27일 • 교회설립 3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
 -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 운동 시작

1995년

- 3월 27일 • 제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5월 7일 • 김덕수 선교사 육사 교회 파송
- 5월 29일 • 제6차 김치 신학세미나
- 6월 6일 • 95 흥해작전
- 9월 3일 • 부목사 원호 이순환 김명현 목사 청빙
- 9월 4일 • 제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10월 8일 • 95비전 2000 운동
- 10월 18일 • 새 성전 대지 구입 계약 체결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
- 11월 1일 • 부목사 박귀환 청빙
 - 협동장로 임명- 이재권 이영기
- 11월 7일 • 제17회 서울강남노회 본 교회에서 개최
- 11월 26일 • 교회설립 4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1996년

- 1월 28일 • 농어촌 100교회 지원 운동 전개
- 3월 9일 • 육군 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 3월 25일 • 제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 5월 1일 • 새 예배당 건축 기금을 위한 모음과 나눔의 장 개장
- 5월 21일 • 제7차 김치 신학세미나 개최
 - 오세아니아주 권역 8개주 대상
- 6월 6일 • 흥해 작전 개전
- 7월 28일 • 한기총 기독교 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8월12일~15일 • 농촌전도단 파송
- 9월 2일 • 제1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 주제: 복음과 문화
- 10월 8일 • 비전2000운동 시작
- 11월 23일 • 교회설립 5주년 기념 새 예배당 건

축을 위한 바자

- 11월 24일 • 교회설립5주년 기념행사 개최
 - 장로장립 : 이영기 성준경, 김상철, 김영준

1997년

- 2월 16일 • 농어촌 100 교회 운동 113 교회와 결연
- 3월 24일 • 제1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 주제: 복음과 상황
- 3월 29일 • 가족 초청 전도 만찬회
- 5월 5일 • 전교인 체육대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축제'
- 5월 20일 • 제8차 김치 신학세미나 개강
 - 주제: 눈을 들어 아시아를 보라 (아시아권- 네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 6월 6일 • 흥해작전 개전
 - 주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 7월29일-8월1일 • 농촌전도단 파송
- 7월28일-8월5일 • 파키스탄 선교 여행단 파송
- 9월 1일 • 제1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 주제: 교회와 국가
- 10월 1일 •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
- 10월 5일 • 비전2000운동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로'

1998년

- 2월 7일 • 농어촌 100 교회 운동 103 교회와 결연
- 3월 30일 • 제1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서울 성경대학 개강
- 4월 16일 • 김치세미나 개최 I (주한선교 동역자대상)
- 5월29-30일 • 김치 세미나 개최 II (주한 선교 동역자대상)
- 6월 6일-25일 • 98 흥해 작전 개최
 - 주제: '희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 8월 15일 • 서울교회 군복음화 위한 비전 2020 운동본부 발족
 - 목사 장로 안식년제 채택
- 9월 7일 • 제1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서울 성경대학 제4학기 개강
- 10월 10일 • 새 성전터에서 일시작 감사예배 개최
 - 14일-16일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회' 개최
- 11월 22일 • 추수 감사절 기념 및 교회 설립 7주년 기념예배
 - 제5대 장로 임직식(왕경래, 하영수, 노송성, 서문석, 박두호)

1999년

- 3월 29일 • 제1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 제5학기 서울성경대학 개강
- 4월 16일 • 북한 난민보호 UN청원 100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
- 5월 23일 • 문형숙 평신도 선교사 파송
- 6월 6일 • '9 흥해 작전 발대식/건축 헌금
- 9월 6일 • 제1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 제6학기 서울 성경대학 개강
- 10월 6일-8일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10월 10일 • '99 비전2000운동 발대식(사명자 대회로 개명)
- 11월 28일 • 교회 창립8주년 기념 예배
 -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 (장로-이번생, 민순규, 윤찬오, 이원형, 임훈규, 집사-허상한, 신순우, 이남성, 정동호, 최재규)

서울교회 창립 9주년을 맞으며...

박귀환 목사(동천교회)

세 번째 천년을 맞으며 한국교회를 향도해 나갈 서울교회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논현동 시대와 반포동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대치동 시대를 향하여 진진하는 서울교회가 이종윤 목사님을 중심으로 만민에게 전도하고 빈약한 자를 구제하며 천국시민을 양성함으로 이 전보다 더욱 이름 값, 나이 값, 자리 값을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 역사를 서울교회 창립 10주년에는 부족함이 사람만의 축하 메시지가 아닌, 역대 교역자 전원이 참석하여 뜨거운 축하와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21세기의 문턱에서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세계교회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서울교회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교회 교역자들과 당회원, 안수집사회, 그리고 온 교우들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 멀리에서나마 저희 가족과 동천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창립9주년을 맞는 서울교회에 정성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보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순환 목사(속초중앙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마다 느끼는 감격이지만 올해 교회설립9주년을 맞이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들의 감동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간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교회 건축을 새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다 이루고 입당을 하게된 2000년... 지나온 9년의 역사 속에 3년 6개월을 봉사해온 목회자로서 같이 기도했던 큰 기도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움과 솟구치는 감동을 자제할 길이 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0개월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이 시대와 한국 교회의 갱신을 주도해온 지난 9년간의 서울교회의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많은 역경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낸 것이었음을 새삼 놀라운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또한 앞으로 배출될 주의 일꾼들과 이 교회가 받을 하나님의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그 사명과 책임은 더 크고 값지고 위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서울교회 대치동 예배당의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욱 정진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본을 보이며 한국과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설립 9주년과 새 예배당 입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성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김사빈 어린이(유년부)

초등학교가 되자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옮겨졌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유년부의 문을 열자 유치부 보다 예배실도 더 넓고 예쁜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처음 찬양대에 섰을 때가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찬양대를 서라고 하셨을 때에는 떨려서 안시켰다고 했는데 헤보고 나니 재미있고 즐겁다. 찬양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 몸도 마음도 따뜻하다.

기도시간에는 내가 잘못된 일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하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요즘은 걱정이 하나 생겼다. 교회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동생들 언니들 모두 정이 들었는데 헤어져야 하니!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스가 운행되도록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다. 교회가 이사 가면 나 뿐 아니라 지혜 수진이 아들이 모두가 거리가 너무 멀다.

나는 다른 교회를 가면 되지만 우리친구들은 어떻하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 싫어요 나도 친구들과 함께 서울교회 새 예배당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 해야겠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초대합니다

대학부의 OPEN HOUSE

교회창립일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대학부에서는 태신자 및 잃은 양 초청잔치를 갖는다.

서울교회에 등록된 교인중 대학부 해당 연령(1981~1976년생)의 모든 청년들과 대학부 회원들이 연초에 전도하기로 작정한 친구들을 총동원하여 전도하는 행사로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활짝 열려진 집이라는 의미로 OPEN HOUSE를 개최한다.

행사내용으로 1부에는 2층 소예배실에서 1시부터 찬양과 전도 집회, 2부는 3층 소망부실에서 뮤지컬과 팀사역 활동이 있으며, 그 이후 친교와 다과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젊은이들과 성도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사명자대회를 마치며

원복순 권사(2교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7가지 기도제목을 내놓고 50일간 기도하는 나의 눈시울은 어느덧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니 우리 서울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눈가에 이슬이 맺혀지지 않은 형제들은 없을 것입니다.

뇌리에 스쳐가는 지나간 고통의 세월!
왜! 우리는 감사의 부르짖는 소리가 가슴이 터지도록 아버지를 불러야만 했던가요? 살아 계셔서 우리 서울교회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함께 불쌍히 보시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놀라운 신 감사와 그 큰 은혜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백세에 이삭을 주시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제난국이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실업자의 물결이 다시금 쏟아지며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가능은 없음을

믿으며 다시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선하게 해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배당 입당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가슴 벅찬 감사와 이 감격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서울교회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외치며 자랑할 것입니다.

서울시내 어느 곳에 아름다운 넓은 공원이 있는 이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어느 곳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 믿음 변치 않으며 늘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지 9주년이 되었다. 불탄 포도넝쿨같이 희망도 존영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새 교회를 허락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깃발을 걸고 빈약한 자 구제하며 천국시민 양성이라는 기호를 세우고 출발한지 어언 9개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감사할 것 뿐이다. 심한 풍파가 몰아다치고 격랑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마다, 그리고 이리저 앞의 양과 같이 무서운 위기와 위협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이기게 하시었다. 하나님은 우리 서울교회의 하나님이시라 어찌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지지 않으리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진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없이 믿고 달려온 세월동안 상처도 고통도 있었으나 모두가 영광이요 기적이였다.

1991년 10월 6일 168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한국교회 갱신을 부르짖으며 차디찬 마루

교회설립 9주년
추수감사절 메시지

불탄 포도넝쿨 같은 우리에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50일간 사명을 받은 그 해 11월 24일 마침내 535세대 1860명의 성도들이 서울교회 창립멤버로 교회는 출항하게 되었다. 내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발과 함께 시작한 계절학교, 청지기 수련회, 성경대학, 흥해작전,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개최했고 외적으로는 김치신학세미나, 목회자세미나 그리고 농어촌 100교회 돕기 운동이 펼쳐졌다. 불탄 포도넝쿨같은 불쌍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어 기독교 교도소 설립, 기독교 21세기 위원회, 정직, 절제, 사랑 실천 운동, 청소년 순결서약식, 목사제복 제정, 비전 2020운동, 탈북 난민 보호 UN청원운동 등 한국교회발전에 작은 보탬이지만 할 수 있게 하셨다. 슬로바키아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와 몽골, 방글라데쉬, 아프리카 니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중국과 카메룬에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하셨다.

기독교 방송, 아세아 방송망을 통한 복음전파와 동아일보 순례자 컬럼과 기독교 연합신문의 난해 성경구절 해설을 통한 마스크션 선교 또한 활발히 전개 되었다.

교회 설립 초기부터 새 예배당에 대한 꿈이 있어 기도하던중 여러 성도들이 부동산을 헌납했고 부지 물색을 위해 백여 곳 이상을 다니면서 울부짖던 중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강남

한 복판에 이미 있던 교회를 내 보내시고 그터와 인근 건물을 확보케 하시고 95년 10월 18일 대지 매입 계약을 체결케 했다. 전에 있던 교회의 확장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강도가 높게 저항 해 왔다. 우리 교회 건축위원 장로님들의 지혜와 끈질긴 인내심으로 끝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바람을 잠재우고 97년 8월 14일 강남구청 건축 심의를 거쳐 98년 11월 12일 착공 허가를 받았다. 기공식이라는 말도 할 수 없어 일 시작 감사예배를 드린 후 우여곡절 끝에 만 2년만에 입당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다.

빈 손 들고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쳐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셨고 죄인중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기도한 것 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고 죽도록 충성을 다 마치는 집사님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겸손히 희생의 본을 보이시는 장로님들과 영감있는 말씀과 사랑의 봉사를 하는 교역자님들이 있는 서울교회는 복 있는 교회요, 자랑스런 교회라 할 것이다.

서울교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롬, 필그림 찬양팀에서 문안드립니다. 필그림 찬양팀은 99년 여름, 청년 찬양에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조직되었습니다. 주일저녁찬양예배에 앞서 찬양모임을 가졌던 '미가엘 찬양팀'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대학부와 청년부 찬양팀을 통합하여 조직된 필그림 찬양팀은 현재 주일 오후 1시부터 2층 예배실에서 대학 청년부를 중심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현대적이며 새로운 찬양의 보급에 힘쓰며, 그 외에도 서울교회속에서 여러가지 찬양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 시대에 맞추어 필그림에도 여러가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일3부 2시

*
새 예배당
3부 예배는 필그림과 함께
전신일(4교구, 필그림 단원)

예배가 대정부 중심의 청년예배로 드러지게 됨에 따라, 내년부턴 필그림 찬양팀은 주일오후 1:30부터 1:55까지 본당에서 찬양을 인도함으로 3부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실 고경선 목사님의 지도하에, 더욱 경건하고 진실한 찬양을 위해 전자악기가 아닌 기타와 건반으로 기악팀을 이루며, 그 외에 성악팀과 워십(울동)팀, 그리고 OHP와 악보 등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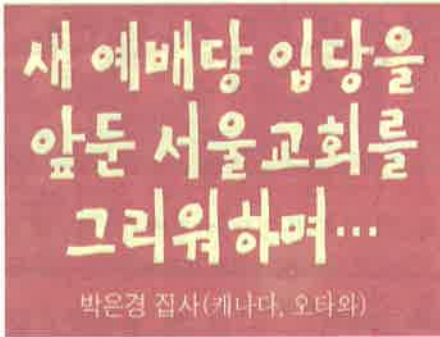
담하는 기술팀등 4팀으로 팀을 개편하여, 좀 더 조직적이고 생명력있는 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필그림의 목적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임재속으로 안내하는 것이며, 은혜롭고 영감있는 찬양을 부르고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 것을 위해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천년 필그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고경선 목사님(011-9744-0190)이나, 홍혜련 자매(011-9996-3778)에게 연락해주시시오.

시계를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국 시간을 계산하게 되고 아울러 한국의 가족들과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면 예배와 유아부 집회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며 훈훈한 이야기들이 꽃 피우던 옥담층 식당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그간 가족들과의 전화 통화와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둔 서울교회 소식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한 권사님께서 “하늘나라가 천당이라면 너희가 갈 나라는 구백구십구당”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저희가 온지 100일. 무엇이 그리 좋기에 이 나라가 하늘나라에 버금가는 나라로 꼽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디나 사람이 사는 곳 마찬가지이지만 굳이 좋은 것을 꼽는다면 의료보험이나 육아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복지제도가 잘 돼있다는 것, 땅이 넓고 도로가 한적하고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것, 공기가 좋아 서울에서 달고 살던 잔기침이 사라진 것, 사람들이 비교적 여유 있고 전반적으로 퇴근 시간이 매우 빠른 편이며 주말이나 휴일엔 상점까지도 일찍



문을 닫고 주로 가족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정착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나, 조금 참으면 좋아진다”는 인사들을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 생활에 뭐가 그리 힘든가도 생각해 봅니다.

저로서는 아무래도 언어구사에 자유롭지 못한 것,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동시에 받은 은사와 같고 닮은 기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 진로에 대해 세롭게 고민해야하는 것, 무엇보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과 교

회에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슴 아픈 것, 한국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에 대한 그리움 등이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경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힘써 봉사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던 서울교회에서의 생활이 곧 천국시민의 삶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힘닿는 대로 교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기념일을 맞이한 서울교회는 금년 성탄절을 새 예배당에서 맞으신다죠? 추위가 혹독하다는 이곳은 이미 한 달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도시를 수놓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성탄절 장식을 바라보며 새 예배당에서 주님 오심을 축하하게 될 서울교회 성도들을 그려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장식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일꾼이 누구일지 그 분을 매우 부러워하면서 그 손길에 축복해 봅니다.

새 직분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송인권 집사(1교구)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 안수를 앞둔 요즘 저를 주님앞으로 힘들게(?) 인도하신 지금은 천국에 계실 저의 아버님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래전에 아버님의 서원하시는 기도를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주님께 드린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당사자인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를 드린다니...” 하는 황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후에 한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안타까움과 순종치 못함이 늘 저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때의 그 기도 말씀을 아버님의 유언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송구스러움과 두려운 마음도 앞섭니다.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소리없이 봉사하시는 훌륭한 많은 집사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쉼터 모르지만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든 것이 모자라는 저에게 너무도 과분한 직분을 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능한 일꾼은 아닌가 또한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송구스러움과 두려운 마음도 앞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고 담대히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곡선”(이종운 목사님 저서)이란 제목의 책에서 직선만 굽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의 짧은 인생속에서도 신앙곡선의 주기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몇번의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직도 게으르고 미련한 인간입니다. 모든 것이 미완성이고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러진 이삭의 순종을 본받아 조용하게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최소희 집사(5교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시

편 116편 12 - 14)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공로도 없고, 부족한 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피택 권사로 삼아주시고, 교육과정을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육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 해 주신 당회장 이종운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는 삶과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할 것을 다짐합니다.

말세를 당한 이때에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백결불굴한 믿음을 본 받기 원하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주의 계단과, 이웃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찬양대의 지난 9년을 돌아보며

서희숙 집사(교구)

찬양 중에 계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헌없는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힘과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선택받은 많은 종들의 순종이 오늘의 서울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빛 바랜 기억 속에서도 9년 전 드렸던 눈물의 첫 수요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증결모 속의 까까머리 이목사님을 첫 대면하던 그 순간, 매어지는 가슴을 피차 위로하며 드렸던 그 예배를...

즉석에서 자원하여 조직된 40여명의 찬양대의 찬양은 은 성도와 함께 부른 감사 그 자체가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과 연합 속에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앞다투어 섬기고 주일 1, 2부는 물론 저녁 찬양까지 3번의 찬양을 모두 같은 대원이 곤한 몸을 추스리며 함께 감당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수요 1부 찬양대가 조직되던 날 나이 많으신

권사님 몇 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또 한번 서로를 위로하며 찬양에 임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9년이 훌쩍 지나 버린 지금 서울교회 찬양대는 6개의 각기 특색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 예배당 시대를 맞는 우리 찬양대는 보다 내실 있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150명의 한정된 좌석에 맞게 믿음과 재능을 겸비한 성실한 일꾼들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가 쉽게 들어가고 적당히 봉사하며 마음대로 중단해 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잠시라도 가진 분이 있다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교회 찬양대는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의 가슴과 입술을 하나로 모아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흥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백수남 집사(5교구)

주일 낮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힘차고 맑고 고운 은혜스러운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많은 교사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대학생 및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부부 또는 가족전체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기 위하여 모든 대원들이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2000년 새해부터 기도 많이 하시는 대강 장로님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과 기휘자 집사님의 열성적인 음악지도와 대원들의 열심과 인내의 결과로 찬양대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음악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찬송 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멜로디로 매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의 임재 하심을 느끼면서 새 힘과 참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급전 성탄절 축하 음악예배와 새 성전 입당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게 될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은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연습시간을 늘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찬양준비를 합니다. 새 성전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새 성전에서 우렁차고 아름다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왕경래 장로, 김정희 권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안드레 남선교회 - 27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주신은혜 힘입어...

장양일 집사(6교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부족하고 부족한 것 뿐인 이 죄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을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충만함도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뭉뚱 교회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인 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는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나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피택집사 교육, 갈급한 나의 마음 받을 욕도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도 다짐을 하고 열심히 배웠지만 막상 교육이 끝났다 생각 하니 아쉽고 허전한 심정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말씀 가운데 봉사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써 겸손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동정 ■

- 이종은 목사는 27일(월) 서울 강남 노회 임원회, 28일(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노송성 장로, 이영옥 집사는(6교구) 디지탈 카메라 1대를 순례자를 위해 기증하다.
- 유을상 집사, 윤숙희 집사(6교구)는 강서구 화곡동 343-48 리버빌@ 301호로 이사(2605-0203)
- 홍정호 장로(우선자 권사)는 충남 아산시에 도고산장파크 맥삼석 원적외선 체험실을 완공하고 개업하다(041-542-6077)
- 순례자가 창간된지 오늘로 9돐을 맞이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로 여기까지 달려 온 것을 감사한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2000 사명자대회 위하여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임명받을 사명자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